

이기는 삶

나에게 독(毒)이 되는 사람

나의 주변에는 나에게 보약(補藥)처럼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독(毒)이 되어 해악(害惡)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또 일을 복잡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만들며 갈등을 일으킨다. 무엇보다 나에게 나쁜 점은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만일 나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계속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도 좋을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감정 콘트를 못하는 사람은 피하라

첫째는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부터 기쁨을 느낀다. 특정 인물의 실언을 화제로 삼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괴로움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둘째는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기분이 상하면 아무에게나 막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문제를 나에게 돌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셋째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이들에게 공감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이 항상 요구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피해자 유형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넷째는 질투하는 사람이다. 이들에게 다른 사람은 항상 부러운 존재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보다 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상대를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린다. 이들과 오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당신이 각고의 노력으로 성취한 일조차도 하찮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친분을 앞세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다. 당신을 친하게 대하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나를 살갓게 대하는 것은 나에게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위함이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피하라

여섯째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쪼먹는 존재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일곱째는 울퉁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며 절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깎는다. 이들은 당신이 열정적이고 표현이 풍부한 인간이 되는 것을 막아선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여덟째는 오만한 사람이다. 이들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한다. 오만은 비뚤어진 자만심에서 발동하는 잘못된 자신감이며 이들의 오만 뒤에는 항상 초조와 큰 불안감을 숨기고 있다. 이들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오만한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성과가 나쁘고 무례하며 정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있다.

어떤 조직이든 이상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렇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공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이런 유형의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영적 상징과 꿈 <16>

부제: 영적 상징으로 본 모세 (3편)

(이번 호부터 <꿈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영적 상징과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리즈 초반, 주로 꿈을 다루던 것에서 점차 여러 경전과 신화 등 다양한 영역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꿈과 함께 다루는 흐름으로 바뀌었기에 제목도 그에 따라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모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 담긴 상징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4> '모세,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다'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느님의 산, 호렘에 이르매.' (출애굽기 3:1)

: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인가?'라는 선문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선문답도 하나의 영적 상징으로 보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사(祖師) 즉, 달마는 구세주의 상징이요, 서(西)는 오렘 상 금(金)에 해당하니 합치면 구세주가 서방 정토 즉, 금운(金運)의 세계에서 오신다는 뜻이 됩니다. 구세주는 금운(金運)의 주인공이며 금(金)의 세계, 서방 정토, 서쪽에서 오게 되어있으니 조사(祖師)는 서쪽에서 오게 당연합니다.

서쪽 끝에 등장하는 호렘 산은 말 그대로 서방정토(西方淨土), 하나님의 세계의 상징입니다. 양이 구세주의 상징임은 지난 글에 말씀드렸거니와 모세가 양떼와 함께 서쪽으로 가는 이 장면은 모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땅을 떠나 서쪽, 즉 금운(金運)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광야를 지나 호렘 산으로 들어 가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있는 장소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은 그의 심리적, 영적 위치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한 때 왕족의 신분이었던 모세는 왕궁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 마귀 세상의 정점입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을 다 잃고 변방 땅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그는 불모의 땅 광야를 건너

게 됩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떨어진 땅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땅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갑니다. 그는 신의 산호렘, 즉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곳으로 들어갑니다.

'호렘'은 히브리어로 𐤇𐤍 호렘브로 메 마르다, 건조하다,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호렘 산은 말 그대로 황폐한 땅입니다. 간혹은 인간의 발길이 닿는 광야보다도 더 거칠고 메마른 땅, 인간이 철저히 배제된 영역이 호렘 산입니다.

왕궁에서 변방의 땅으로, 다시 광야를 지나 결국 황폐한 산으로 이어지는 이 여정은 모세의 인간(人間)을 걷어 내는 영적 과정의 한축입니다. 이렇게 왕궁, 변방, 광야, 호렘 산으로 바뀌는 장면의 흐름은 마치 거장 영화감독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되고 배치된 미장센(mise en scene), 몽타주 시퀀스(Montage Sequence)를 보는 듯합니다.

세상 것, 마귀 것을 다 이고 지고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껍데기를 벗고 또 벗으며 드디어 호렘 산,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면5> '모세, 떨기나무 안의 불꽃, 하나님을 만나다'

'아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나.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라며.' (출애굽기 3:2)

: 아름답고도 깊은 장면입니다. 떨기나무는 사막의 흔하디 흔한 잡목에 불과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떠돌고 있는 모세 자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이 타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이 불꽃은 생명을 태우고 죽이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살리는 불, 생명의 불꽃입니다. 그렇기에 떨기나무는 불꽃을 품고도 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의 이 불꽃은 분명 하나님의 신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가 모세 자신이요 떨기나무 가운데의 불꽃이 하나님의 신이라 할 때, 이



불꽃은 바로 모세 자신의 내면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신성(神性), 내 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 땅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하나님도 이렇게 모세의 상징인 떨기나무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오히려 모세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 그는 드디어 자기 자신의 진면목(眞面目)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아직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아한 마음으로 자신의 불꽃에게 다가갑니다.

<장면6> '모세, 신을 벗다'

'하나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부르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4)

: 상징으로서의 땅은 영적인 땅, 마음의 땅입니다. 모세가 서있는 땅도 지형학적 땅이 아닙니다. 마음의 땅, '마음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서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 했으니 그 땅은 하나님의 마음자리입니다. 바로 지금, 이 찰나의 자리이며 내 마음과 존재의 중심(中心), 바늘 끝 한 점의 중심자리입니다. 이 땅은

'이변처중(離邊處中)'의 자리 즉, 나라는 껍데기의 층을 벗어난 중앙, 중심자리이며 부유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절대 중심의 자리이며 이긴자께서 승관처럼 말씀하시는 "이제 그대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불러 세운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가 '가까이 오지 말라'입니다. 거룩한 땅에 가까이 오지 말라니요.이상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자세히 보면 내가 신고 있던 그 신을 신고 있는 한, 이 거룩한 땅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 신을 벗고 이리로 오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뿐인 그 곳은 신발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신발은 모세가 이제껏 지나는 인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준 도구요 탈 것에 가깝습니다.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가 인간으로서 걸어온 모든 여정을, 그리고 인간적 길을 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미 왕족에서 도망자 유목민 신세로 전락했고 왕궁에서 변방으로, 광야에서 다시 거친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이미 영육 간에, 속된 말로 그야말로 털털 대로 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거기서 한 번 더, 남아있는 마지막 껍데기까지 벗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 신은 인간에게, 마귀에게 잔인합니다. 방학(放)하(下)畜, 버려라, 버리고 또 버려라 하십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이는 인간의 탈을 벗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건너는 장면이요, 인간과 마귀의 땅 즉, 주변 테두리의 세계를 넘어 바늘 끝 한 점의 중심자리, 내 속 하나님의 땅에 발을 내딛는 정엄한 순간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른 꿈 하나를 소개 할까 합니다. 수 년 전, 제단 출신의 한 청년이 꿈입니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구세주(이긴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name of the Messiah?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복서 2장 28절)"
▶ "I will give him the morning star (Revelation 2:28)."

이긴자의 존함은 한자로 희성(熙星)입니다. 이 이름은 빛날 희, 별 성의 밝은 새벽별을 의미합니다.
▶ The Victor's first name is Hee-Sung (熙星 in Chinese), which means "bright morning star."

성경에 나오는 '양'은 구세주의 탄생과 자결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7:14, 21:9, 22:3, 21:22, 21:27, 22:1).
▶ The story of the lamb in the Bible indicates the Messiah's birth and qualifications (Revelation 17:14, 21:9, 22:3, 21:22, 21:27, 22:1).

이긴자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1931년은 '양'의 해이며 태어나신 달 음력 6월 또한 양의 달이며 태어나신 날짜는 28일입니다.
▶ The Victor Christ's birth year and month mean lamb. The Victor was born on June 28, 1931,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28'이라는 날짜는 별의 수(數)를 의미하며 이긴자께서는 영생을 상징하는 금운의 시간인 새벽 4시에 태어나셨습니다.
▶ The date 28th means a star in "the Book of Changes", and the Victor was born at 4 a.m. in the morning to signify gold, which symbolizes immortality.

이처럼 구원을 상징하는 양을 뜻하는 해와 새벽별을 뜻하는 이름으로 출생하지 않으면 가짜 구세주인 것입니다.
▶ If you are not born in the year of birth, which means sheep, and the name of "bright morning star", you are a fake savior.*

by Alice

<2012년 3월, K의 '불타는 가지' 꿈>

'큰 나무의 가지가 불에 타고 있다. 내 옆에 주님이랑 생각되는 분이 서있다.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니 그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재를 (주변에) 덮어 주라"고 말했다.'

: 이 꿈과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의 장면이 많이 닮아있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나무에 불은 불이라는 공통의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꿈의 나뭇가지에 불은 불은 떨기나무의 불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에서 나무의 본체는 하나님 당체(當體)를 의미하며, 가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지들을 상징합니다.

모세 시대의 빈약한 담불이 21세기의 꿈에서는 큰 나무의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기신 하나님이 튼튼한 나무로 등장했고,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가지들이 연결된 모습으로 보아도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불타고 있는 이 가지는 꿈을 꾸는 청년 K입니다. 가지는 불에 타고 있다는 것은 청년 K가 당시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싸여 불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K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은 매우 직접적이고도 근원적입니다. 질문하는 자 스스로 불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미 느끼고 있기에 나온 질문입니다.

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재를 덮으라" - 4편에 계속 -

여기에는 암호와도 같은 영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꿈의 상징으로서의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닌 영적인 불, 하나님의 불입니다. 재는 분명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태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인간 껍데기, 마귀 신입니다.

이 꿈의 재는 하나님의 불로 태워져 나온 재, 나라는 마귀가 화제(火劑)되어서 나온 마귀 시체입니다. 마귀 나를 화제시켜서 나온 재이니 그 재를 뿌리고 덮을수록 하나님의 불은 활활 더 타오를 수밖에요.

나를 계속 죽이고 죽여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장면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한 명령과 짝을 이룹니다. 오히려 나를 태워 죽여 그 재를 뿌리고까지 하고 있으니 모세의 시대보다 더욱 철저하고 발전된 영의 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작금의 시대가 이기신 하나님, 이긴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한 청년의 꿈이 위대한 성령의 장면과 여러모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모세처럼 흥룡해서 일까요. 아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긴자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모두가 모세와 같은 구세주, 의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꿈의 명령대로 나를 죽인 재를 뿌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세주 하나님으로 거듭날지 말지는 그저 내 자신의 선택일 뿐입니다.*